

정책제언서

□ 제언정책

제 언 정 책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 운영
정책제언자	전인고등학교 ‘두부 한 모’ 팀(김가영, 이영서) 2019 강원도 청소년 정책제언대회 3위
정 책 자 문	- 용정순 사회적협동조합 티움연구소 이사장(전 원주시의회 의원) - 곽도영 상지학원발전기금 이사장(전 강원도의회 의장)
대 상 (수혜자)	- 강원도 내 청소년
사 업 개 요	- 사업명: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 - 목적: 접근성이 뛰어난 동네 카페에 지역주민들이 음료를 기부하도록 하고 이를 청소년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에게는 여가와 쉼의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을 환대하고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자 함. - 사업내용: 18개 시군별로 맡겨놓은 카페 모집과 음료 기부 운동을 하고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함. - 운영방식: 시군별로 청소년 관련 기관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에 함께할 동네 카페를 모집하고, 카페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청소년을 위해 음료를 기부하도록 하고 청소년이 이를 무료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추정 예산: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 운영 담당자 1명의 인건비 + 홍보비) × 18개 시군
소요사업비	- 추정 예산: 추정 예산: (1/2인 인건비+ 홍보비) × 18개 시군= 30,000천원 × 18=540,000천원
제 언 배 경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추진 배경 및 현황 · 강원도 내 청소년은 수도권에 비해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청소년들이 여가생활을 하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갈만한 데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거나 여가시간을 보내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쉼터 카페가 운영되고 있거나 일부 지역의 경우 청소년 관련 시설에 카페가 있으나 청소년들이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고 대부분 시군의 경우 청소년들이 이용할 만한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지역적 소외감을 느낌. · 기존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쉼터 카페가 있으나 특정 지역의 특정 장소에만 설치되어 이동 수단이

	<p>없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의 청소년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시간도 위탁기관의 근무 시간에 맞춰져 있다 보니 청소년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하교 시간 이후나 야간 시간엔 사용이 어려움 · 접근성이 좋은 카페의 경우 음료 비용이 비싸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보니 거리를 헤매거나 어두운 골목길을 배회하거나 노래방, 게임방으로 전전하여 안전한 여가 공간이 부족함. <p>-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와 쉼의 공간이 필요. · 기존 동네 카페를 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별도의 카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적은 홍보와 관리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카페를 지정할 수 있음 · 지역주민들이 카페를 이용하며 청소년들을 위해 음료를 기부하는 문화를 통해 온 마을이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고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 환대받는 경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음
<p>목 적 (제언취지)</p>	<p>- 접근성이 뛰어난 동네 카페에 지역주민들이 음료를 기부하도록 하고 이를 청소년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에게는 여가와 쉼의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을 환대하고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자 함.</p>
<p>세 부 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개 시군별로 청소년기관이나 단체에 “청소년을 위한 맡겨 놓은 카페” 운영 담당자를 지정 - 지역별로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 모집 - 카페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의 취지와 의미를 홍보하여 간단한 응원 또는 격려 메시지와 함께 기부 카드 적립 -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 위치와 카페에 적립돼있는 기부 음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함 - 청소년들은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를 이용할 때 기부 음료를 무료로 이용함 - 운영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시 맡겨놓은 카페 <div data-bbox="598 1809 1157 2145" style="text-align: center;"> <p>어떻게 <맡겨놓은 카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0%; padding: 5px; width: 20%;"> <p>시민 동참 카페에 청소년을 위한 음료를 적립(기부) 해요!</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0%; padding: 5px; width: 20%;"> <p>동참 카페 맡겨놓은 카페가 되어 적립된 음료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해요</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0%; padding: 5px; width: 20%;"> <p>청소년 매주 수금! 동참카페에서 맡겨진 음료와 지역의 환대를 누리요!</p> </div> </div> <p>당신의 마음을 맡겨놓고 싶다면 여기로! </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 한 잔으로 온정을 나누는 카페 소스페소(Caffé Sospeso) 운동 전 세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부 문화가 존재하여 타인을 생각하며 온정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혼자 사는 세상이 아픔을 느끼게 해준다. 미국에는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고, 거액이 아니라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소액을 기부해 큰돈을 모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기부형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역시 활성화되고 있다. 다양한 기부 문화 가운데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시작된 커피 한 잔을 사서 마시기조차 어려운 이웃을 위해 커피 한 잔을 미리 계산하고 가는 ‘카페 소스페소(Caffé Sospeso)’ 즉 이탈리아어로 ‘맡겨 놓은 커피(Suspended Coffee)’ 라는 뜻을 가진 캠페인은 커피가 삶의 일부인 이탈리아만의 나눔 방식이지만 커피를 즐기는 전 세계인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는 나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 카페 소스페소의 기원 나폴리에서 시작된 카페 소스페소 문화는 나폴리의 전통으로 1800년대 후반에 나폴리의 노동자들이 이용하던 카페에서 유래되어 2차 세계 대전 중에 붐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을 살 여유가 없었던 시기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을 사면서 두 잔 값을 지불하곤 했고 바리스타가 미리 지불된 커피 한 잔을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었다. 이후 이탈리아 전역에 '카페 소스페소' 운동이 번지면서 커피 한 잔으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업소가 늘었고, 커피 뿐만 아니라 기본 식료품부터 젤라또까지 '카페 소스페소' 운동이 확산되었고 현재까지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비용 부담 없이 18개 시군 청소년들 모두에게 무료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와 쉼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음 - 기존 카페 공간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맡겨놓은 카페” 에 함께 하는 카페도 수익이 늘어날 수 있음 - 지역사회가 음료 기부 문화에 동참함으로써 청소년들을 환대하고 함께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문헌</p>	<p style="text-align: center;">-</p>